

중서 화제 ‘꽃뱀 게임’, 성차별 논란... “여성혐오 부추겨”

게임 이름 바뀌고 제작자 SNS 차단

“로맨스 사기 방지 경각심” 주장도

중국에서 남성을 의도적으로 유혹해 금품을 뜯어내는 이른바 ‘꽃뱀 여성’을 주제로 내세운 온라인 게임이 성차별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영국 BBC방송이 지난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달 중국에서 출시되자마자 게임 유통 플랫폼인 ‘스팀’에서 인기 목록 1위에 오른 ‘꽃뱀 게임’(라오늬유시, 별칭 꽃뱀들에 대한 복수)을 둘러싸고 중국 내에서 여성혐오를 부추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게임 속에서 플레이하는 자신의 돈을 노리고 접근해 유혹하는 여성들을 상대하는 남성 주인공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설정 탓에 게임이 모욕적인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한다는 비판이 나왔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 게임은 연애를 빙자한 사기꾼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이라고 맞섰다.

예술가로 활동하는 쉬이룬은 “게임 이름 자체가 이미 여성혐오적”이라면서 “남자친구가 돈이 많거나 여성이 자기 외모를 꾸미기만 해도 ‘꽃뱀’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게임에서 등장하는 모든 꽃뱀 캐릭터가

여성이라는 사실과 게임 속 ‘남자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려면 돈을 얼마나 쓰는지 보라’라는 등의 대사가 문제가 되고 있다.

비판이 거세지자 제작사 측은 게임의 이름을 아예 ‘로맨스 사기방지 시뮬레이션’으로 바꿨다.

제작진은 “여성을 겨냥할 의도는 없었다”면서 “요즘 연애의 감정적 경계와 회색지대에 대한 열린 대화가 이뤄지기를 원했”이라고 해명했다.

또 논란 이후 중국의 여러 소셜미디어에서 게임 디렉터(총괄 제작자)가 차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게임에 대한 지지자들은 “모든 여성이 꽃뱀이라는 게 아닐뿐더러 로맨스 사기 문제가 심

각하다”면서 제기되는 비판들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중국에서 2023년 기준 로맨스 스캠 사기로 인한 범죄 피해액은 20억위안(약 3천81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게임의 실제 모티브가 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발생한 21세 중국인 남성의 극단 선택도 재부각되고 있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로부터 경제적 착취를 당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당국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 사건 이후 ‘꽃뱀’을 뜻하는 라오늬유라는 신조어가 중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

작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게임은 지난해 중국에서 크게 흥행한 ‘검은 신화: 오공’을 제치고 계속해서 상위권에 랭크되며 인기를 끌고 있다.

BBC는 전통적인 성 역할을 강조하고 성평등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까지 자행되는 중국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차별적 요소가 있는 게임이 기존의 성별 규범을 더욱 강화한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익명의 한 여성은 “이런 게임은 남녀 간 적대감을 부추킨다”면서 “생계를 위해 남성을 기쁘게 해야 하는 열등한 존재로 여성을 또 다시 그려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끝없는 전쟁범죄...이스라엘, 가자주민 강제이주 추진

휴전 합의 이행되면 개시 가능

60만명 이주시킨 후 전체 확대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의 200만명에 달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을 가자 남쪽의 중심도시 라파로 강제이주시킨다는 구상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7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와 영국 매체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이날 현지 언론을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라파에 ‘인도주의 도시’라는 정착촌 건설을 준비하라고 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초기에는 알 파와지 지역에 있는 60만명의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이주시킨 후 최종적으로는 가자지구 인구 200만명 전체를 이주시킨다는 구상이다.

이 정착촌은 국제 인권 기구들이 관리하고 이스라엘군이 외곽 경비를 맡는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이곳으로 이주하기 전에 이스라엘군의 보안 검사를 거쳐야 하고, 한번 들어가면 마음대로 떠날 수 없으며, 강제이주와 동시에 희생자들에게는 제3국으로의 이주도 유도할 계획이라고 카츠 장관은 밝혔다.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의 강제이주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벌이고 있는 가자전쟁의 휴전이 합의되고 실제로 이행된 후 여러 조건이 허락하면 시작될 수 있다고 카츠 장관은 덧붙였다.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 주민들을 다른 국가로 이주시키고 이곳을 국제적인 휴양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힌 후부터 이스라엘 정부 내에서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강제이주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러나 이스라엘 국방부의 강제이주 구상은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투싼 출신의 키리엘 시하스가 7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샌트로 샌안토니오가 주최한 텍사스 지역 홍수 사망자 추모 기도회에서 촛불을 들고 있다. 텍사스 중부 지역의 홍수로 인한 사망자 수는 100명을 넘어섰으며, 여기에는 여름 캠프의 캠핑객과 직원 등 최소 27명이 포함돼 있다. /EPA-연합뉴스

캠핑하던 어린이 27명 희생...美텍사스 홍수 사망자 104명으로

희생된 어린이 대부분 8세 이하

미국 텍사스주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캠프에 참가했던 어린이 27명이 폭우에 범람한 강물에 휩쓸려 쓸려 떠돌던 주검으로 돌아왔다.

7일(현지시간) AP통신과 CNN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지난 4일 텍사스 중부 지역 커카운티를 덮친 폭우 피해로 ‘캠프 미스틱’에 참가했던 여자 어린이 27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캠프를 운영해온 기독교계 단체는 성명을 통해 인명 피해 수를 확인하면서 “이런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을 견뎌야 하는 가족들과 함께 우리가 슬픔을 겪는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캠프 희생자는 대부분 8세의 어린 소녀들이다.

앨라배마주 출신 8세 소녀의 할머니 데비 포드 마시는 페이스북에 손녀를 잃은 슬픔을 전하면서 “이 아름답고 용감한 소녀가 우리 삶에 함께했던 것을 항상 축복으로 여길 것”이라고 썼다.

그는 AP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 소녀의 부모가 “견딜 수 없는 상실에 슬퍼하고 있다”고 전했다.

CNN은 다른 8세 소녀 해들리 한나, 또다른 8세 소녀 엘로이즈 펙 등의 사망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해들리의 어머니 캐리 한나는 딸이 아직 실종 상태였던 지난 금요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딸은 얼굴에 항상 웃음을 띤 가장 즐겁고 행복한 아이였다”며 “이번이 첫 번째 캠프 참가였는데, 아이가 캠프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해들리의 사망이 확인된 이날 유족은 성명을 통해 사생활 보호를 요청하면서 “우리 가족은 상상하기 어려운 슬픔을 경험하고 있다. 여러분의 공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커카운티 당국은 이날 오전 8시30분 기준으로 캠프 참가 어린이들을 포함해 사망자 79명의 시신이 수습됐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확인된 사망자 수가 84명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트래비스와 버넷, 캔달 등 주변 카운티에서도 사망자가 추가로 보고되면서 현재까지 총 사망자 수는 104명으로 집계됐다고 CNN NBC 방송 등은 전했다.

이에 더해 아직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미스틱 캠프 참가 어린이 10명을 포함해 수십 명이 실종 상태다. /연합뉴스

케냐 반정부시위 진압 최소 11명 사망

케냐에서 7일(현지시간) 전국에 걸쳐 열린 반정부시위와 그 진압 과정에서 최소 11명이 사망하고 567명이 체포됐다고 미국 CNN 방송이 케냐 국립경찰청 집계를 인용해 전했다.

경찰은 시위 참가자들을 상대로 최루탄과 물 대포를 사용했다.

경찰은 민간인 부상자가 11명이라고 7일 오후 발표했다. 케냐국가인권위원회(KNHCR)는 29명이 부상했다고 밝혀 집계치에 차이가 있었다.

이번 반정부 시위는 케냐 청년층 사이에서 정부의 부패, 경찰의 가혹행위, 정부 비판자들에게 대한 탄압 등에 대한 분노가 거세지면서 열렸다.

7월7일은 케냐에서 ‘사바 사바’(스와힐리어

로 ‘7·7’)로 불리며, 1990년 나이로비 시민들이 자유로운 선거를 요구하며 끝까지 대규모 시위를 벌였던 날이기도 하다.

케냐에서는 생활비가 오르는 가운데 증세 법안이 지난해 제출된 이래 반정부 시위와 진압으로 수십명이 숨지는 등 유혈사태가 발생했다.

케냐 정부는 이 법안이 거센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자 지난해 6월 이를 철회했으나, 최근 교사 엘버트 오지왕(31)이 정부 비판 게시물을 올렸다가 경찰에 체포된 후 구금된 상태에서 숨진 것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다시 격화하고 있다.

오지왕은 ‘허위 출판물 발행’ 혐의로 지난달 6일 체포됐다가 이틀 후 숨졌다. /연합뉴스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 2. 신속하고 확실한 A/S
-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품질

전 브랜드 할인 판매! 중고 골프채 보상 판매!

<p>고블 G-07 프리미엄</p>	<p>피닉스 K-07</p>	<p>피닉스 G-01</p>
럭셔리 프리미엄 상급자용	럭셔리 중상급자용	초보 입문자용

FREE 전국 택배 무료 배송!

장인의 기술

오랜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순수 국내제작으로 정밀함과 기술로 정성을 다해 만든 국내 장인 제품입니다.

ASTRO

최고의 명품 퍼크골프채 아스트로

<p>A9 Nice Shot</p> <p>상급자를 위한 정교한 방향성, 비거리, 타구량 향상</p>	<p>A100 Nice</p> <p>부드러운 타구감, 방향성, 비거리 최적화 / 골프엘보 완전해결</p>	<p>A5</p> <p>최적의 밸런스부 부드러운 스윙과 안정적인 타구감</p>
소비가자 가격 ₩ 1,180,000	소비가자 가격 ₩ 1,380,000	소비가자 가격 ₩ 800,000
헤드 단방향 / 과반성 카본 / 황동	헤드 단방향 / 과반성 카본 / 황동	헤드 단방향 / 과반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과반성 카본 100% (88g/55g)	샤프트 신공법으로 설계 초고탄성 카본	샤프트 최고급 과반성 카본 100% (88g/90g)
길이 85cm / 83cm (여성)	길이 85cm / 83cm (여성)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중량 522g (±10g), 샤프트 50g	중량 525g (±10g)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

